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송 예 나* · 한 수 민** · 김 성 현***

논문 초록

본 연구는 2007~201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기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기업 내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해외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짐을 확인했다. 투자 지역별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로의 투자는 인건비나 노조 가입자 수에 영향을 받지만, 북미로의 투자는 기업의 노동환경의 영향이 거의 영향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의 노사관계를 고려한 결과에서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력제품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 때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처한 노동 환경이 악화할수록 그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 등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핵심 주제어: 기업해외진출, 노동조합, 노사관계, 인건비, 인적자본기업패널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4, J3, J5

투고 일자: 2024. 7. 12. 심사 및 수정 일자: 2024. 9. 28. 게재 확정 일자: 2024. 10. 18.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syena4360@skku.edu

** 공동저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smhan@ko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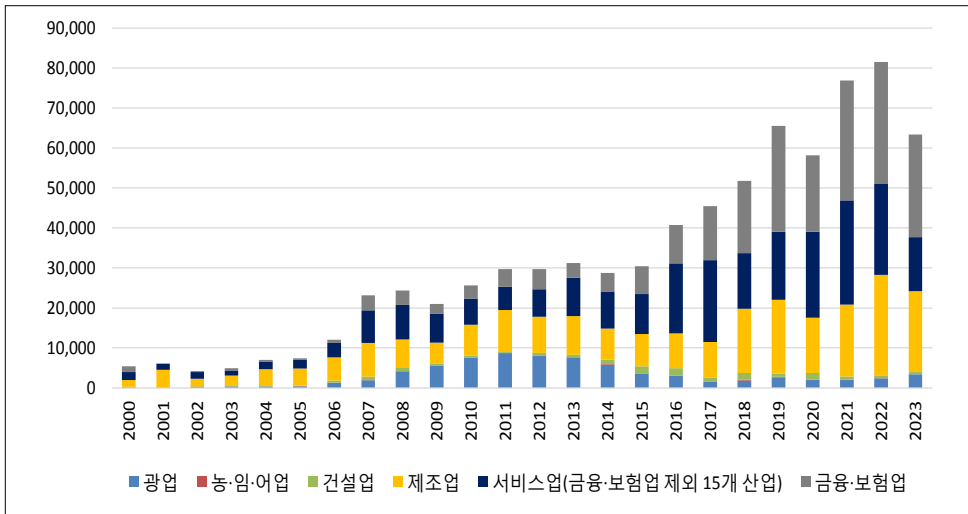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shenrykim@skku.edu

I. 서론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가이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6%(2022년 기준)으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한국 제조업의 해외 진출 정도를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최근 10년간 국내 설비투자액보다 3.6배가량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관련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¹⁾ 구체적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1>과 같이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81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이 가장 많다.²⁾

<그림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4년 84.9조 원에서 2023년 123.0조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한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77.1억 달러에서 2023년 202.5억 달러로 연평균 16.3%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참고하였다.

2) 2000년-2023년간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제조업 2,274억 달러, 금융·보험업 2,142억 달러이다. 제조업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투자가 많고, 금융·보험업은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처로의 자본이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송예나·김성현, 2023).

이와 같이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외직접투자의 32% (2023년 기준)가 제조업 관련 자본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술 및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내 산업공동화, 투자 구축효과, 수출 감소, 고용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수직적 FDI 혹은 수평적 FDI)과 요소부존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높은 법인세율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제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분야이다.⁵⁾ 최근 국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⁶⁾ OECD (2022)도 한국을 상용직 근로자의 개별 해고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3)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성장, 기술 향상, 생산능력 증가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Herzer, 2010; Amin et al., 2022), 국내 투자와 고용을 구축하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Bhasin and Paul, 2016; Lancheros, 2016). 한국경제연구원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일자리 약 7.2만 개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4) 수직적 FDI는 국가 간 요소부존도와 요소 가격의 차이를 활용하여 생산 효율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Helpman, 1984).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모회사의 생산을 대체해 국내의 저숙련 노동 감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생산 분절화에 따른 비용 절감은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평적 FDI는 유사한 요소부존도를 가진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회피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투자로 정의된다(Markusen, 1984). 이와 같은 수평적 FDI는 국내 수출을 대체하고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모회사의 생산 및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나, 해외 자회사가 최종재만 생산할 경우 모회사의 중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모회사의 고숙련 전문인력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5)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운영환경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최인현, 2010).

6)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추진을 위한 과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525개사 중 53.7%가 정제 및 성과 부진에 따른 인력 조정의 어려움, 51.2%는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 채용을 주저하며,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재배치가 어려운 국가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2023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으나 노동시장 관련 순위는 39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즉, 한국은 경제성과, 인프라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과제 전략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대표적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대폭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조직을 제고가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인력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보다는 새로운 해외 투자처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⁷⁾ 하지만 실제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국내 제조 기업의 경영환경과 제조업 해외 진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거시변수에 치중하여 노동시장 변수와 기업 재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수준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본 논문의 주요 기여도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7년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제공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과 기업 재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인적자본기업패널 데이터는 서베이 데이터로 기업별 노동환경 분석을 하는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데이터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해외 진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1', 아닌 경우는 '0'인 범주형 자료를 구성하여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한다.⁸⁾ 투

7) 대표적 기사로 김현수(서울경제 2017. 07. 25.), “눈덩이 인건비 부담에…기업들 더 못 버티고 脫한국 러시”, 김상훈(서울경제 2017. 10. 11.), “최저임금 등 고비용구조 심화…대기업 이어 중소기업 脫한국 가속”, 한예경·이재철·문지웅(매일경제 2019. 02. 27.), “제조업 脫 한국...’투자 역조’ 역대 최대” 등이 있다.

8) 인적자본기업패널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I차 WAVE(2004년~2018년)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 분야’, II차 WAVE(2019년~)에서는 ‘해외 법인 기능’을 조사한다. 해외 진출 여부는 생산(공장), 영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해외 현지법인 여부(법인 기능)으로 조사되

자 결정요인으로서는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노동 경직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업 특성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투자는 현지 시장 진출, 자원 확보,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기 때문에 기업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투자 지역별 그리고 노사관계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고용 보호 수준, 임금 경직성, 노동 규제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는 단일 지표를 찾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의 지표로 정규직 감원율과 비정규직 비율을 사용하지만 (박성준 외, 2008), 이는 경제성장과 정책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경직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업별 분석에서 고용 보호 수준과 임금 경직성 등에 관한 자료는 구축하기가 어려워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의 중요한 요소인 단체 교섭력과 임금 협상 구조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유용하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나타내는 대표 변수로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업규모, 무형자산집약도, 1인당 인건비, 노조 가입자 수가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1인당 인건비와 노조 가입자 수 증가할수록 각각 1.5배, 1.4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연속변수인 노조 가입자 수를 4분위로 나눠 각 분위 더미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조 가입자 수가 높은 4분위에서 1분위 대비 해외 진출 가능성이 4배가량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경우 노동집약적인 기업에서 노조 가입자가 증가할 때 해외투자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아시아와 북미로 해외투자 목적지를 구분했을 때 아시아로의 투자는 1인당 인건비와 노조 가입자 수, 북미로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를 해외 진출로 간주한다.

9)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chard and Wolfers, 2000; 류재우, 2005). 이처럼 노동조합이 고용 계약에서 임금 조정 및 직원 해고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유연성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Chen and Chen, 2013). 또한, 실제로 노조가 있는 기업(전국 30인 이상 525개사)은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의 투자는 무형자산집약도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아시아로의 해외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노동 경직성이 낮고 인건비가 저렴한 점에 기인하고, 북미로의 투자는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본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동원, 2017; Fan et al., 2018). 기업 내 노사관계를 고려한 결과에서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거나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할수록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그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지 않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혁신기업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 때 해외 진출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진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노동시장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 배경으로 국내 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 계량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국가·산업 단위로 분석한 거시적 접근 방법과 기업 단위로 분석한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Kim and Rhee, 2009; 권철우·전봉걸, 2010; 강길성·원용걸, 2018)에서는 시장규모, 임금수준, 사회기반시설, 기술 숙련도와 같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이외에도 해외자본 유치 전략으로 활용되는 법인세, FTA와 같은 정책변수도 실증분석에 사용되어 양국 간 FTA가 발효되거나(Bae and Jang, 2013),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Driffield et al., 2021; 송예나·김성현, 2023)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소득 정도나 이질성에 따라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인 연구도 있다. Kim and Rhee(2009)에서 선진국으로의 투자는 기술 집약도를 나타내는 특허 변수,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는 시장 규모와 저임금 근로자 수가 주요

결정요인임을 설명한다. 강길성·원용걸(2018)은 아시아로의 투자는 대외개방도와 인적자본, 아프리카로의 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사회기반시설, 광업은 인적자본이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임을 보였다.¹⁰⁾ 그러나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결정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기업의 개별 특성들을 고려하는 산업조직론적 관점의 독점적 우위 이론(Hymer, 1960; Kindleberger, 1969; Caves, 1971)과 절충 이론(Dunning, 1980)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설명한다.¹¹⁾

일반적으로 해외시장에서 현지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에서 해외 진출이 더 많이 나타난다(Pradhan, 2004; Chen and Tang, 2014; Chawla, 2019). Chen and Tang(2014)에 따르면 매출액이 크고 직원 수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radhan(2004)은 기업규모가 인도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일정 수준까지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보다 커지면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해지고 업무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업규모와 해외직접투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회사 설립 기간에서도 나타난다.

회사 설립 기간도 기업의 해외 진출과 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Pradhan, 2004, 2017). 이는 회사 설립 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축적된 무형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다수의 독점적 시장지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증가한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Seyoum et al., 2015; Thomas and Narayanan, 2017).

기업은 무형자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식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¹²⁾

10) 수출지향적인 다국적기업들은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로 투자하지만,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서 사회기반시설도 보장되어야 해외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1) 독점적 우위 이론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데 있어 현지 기업에 비해 외국 비용(예, 소비자의 기호, 현지국 국민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차별 대우, 현지국의 정보 부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 비용을 상쇄할 만한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이론이다. Dunning(1980)의 절충 이론은 ‘기업 특유의 우위 요소(Ownership advantage)’, ‘입지 특유의 우위 요소(Location advantage)’, ‘내부화 우위 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12) 무형자산은 특허, 저작권, 영업권 등 물질적인 상태 없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반영한다(Edamura et al., 2014).

특히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연구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Pradhan, 2003), 상대국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해외에 진출해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Pradhan, 2004).

기업의 고정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 변수도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자본집약도는 사업장 건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해외 진출의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다(Buch et al., 2014; Yan et al., 2018). 다시 말해, 기업이 해외 진출시 고정자산 비율만큼 초기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공장이나 부지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기업은 해외진출 결정시 자본집약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노동시장 관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들의 혁신 활동과 기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의 노동생산성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¹³⁾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국가의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¹⁴⁾ Olney(2013)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를 사용하여 1985~2007년간 미국 기업은 고용보호지수가 낮은 국가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켰음을 보였다.¹⁵⁾ 하지만,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보호수준과 연관성이 없다는

13)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R&D 투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여 생산이 축소될 수 있으며(Bassanini, 2002),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Boone, 2002; Saint-Paul, 2002).

14) 한국경영자총협회(2023)의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투기업 중 48.8%가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로 ‘노동 규제’를 지목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22)의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5%가 리쇼어링(한국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으며,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분야 1순위로 ‘노동 규제’를 지목하였다.

15)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각국의 정규직 및 임시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법률적 차원에서 고용보호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며(김준, 2015), 여러 이해관계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오직 사용자의 비용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어(강성태, 2013) 노동시장 유연성의 실제 수준을 보여줄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연구가 있다. 예로, 정한나·김상기(2018)는 한국기업의 OECD 국가로의 투자는 시장 확대를 위한 수평적(Horizontal)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호지수에 대한 민감도는 추정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보다는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노조가 있는 사업체 내에 고충 처리 절차가 존재할 경우 기업의 매출 하락과(고영우·남준우, 2013),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남성일, 2015). 다시 말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높고(Chen and Chen, 2013) 노조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므로 노조 영향력이 강한 기업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다(김주희, 2011).¹⁶⁾ 따라서 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촉진하고(Cooke, 2001),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할 수 있다(Aloi et al., 2009; Owen, 2015). 반면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Cho et al. (2017)은 강력한 노조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노조의 존재 자체는 기업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hin and Lee(2019)는 노조 가입자가 많을지라도,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OECD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 참여할 유인이 낮아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건비도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많이 있다. Li, Gao, and Song(2023)는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 제정된 「노동계약법(Labor Contract Law)」이 시행된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동부 지역에 있는 기업과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증가와 생산력 감소를 우려하여 저임금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Hayakawa et al., 2013).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국적기업 또는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저임금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Fan et al., 2018).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고기술 인적

16) Chen and Chen(2013)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기업 운영의 경직성, 더 낮은 수익률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높다고 설명한다. 김주희(2011)는 한국이 1987년 이후 노조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와 기업이 임금 인상과 고용 조건을 협상하게 되자, 당시 다국적기업들은 생산라인 축소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자본 이동과 자본 철수를 선택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고소득 국가로의 기술집약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Hayakaw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임금과 같은 내부 비용 요인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및 투자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Ⅲ.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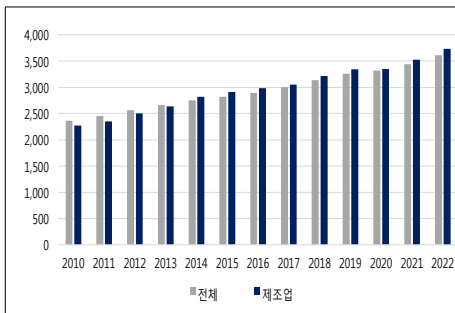
노동환경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변하는 제조업 임금과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을 살펴본다. 제조업 임금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1인당 인건비와 노조 가입자 수 변수와 연관성이 있다.

1. 제조업 임금 현황

〈그림 2〉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산업과 제조업의 월평균 급여액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제조업의 경우 2014년부터 전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제조업의 월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573만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임금 인상에는 기업실적과 성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영민·강은영, 2016).

〈그림 2〉 전체산업 및 제조업 월급여액 현황

(단위: 천원)



주: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3〉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그림 3〉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생활 안정 보장, 임금 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라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후 완만한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OECD, 2018).¹⁷⁾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제조업 월급여액 인상률(5.6%) 보다 낮다.¹⁸⁾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상승한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고 해외시장에서 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¹⁹⁾

2. 노동조합 조직률

〈그림 4〉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7년 당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반으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7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 14.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13.1%로 감소하였다. 2022년 조직률이 감소한 원인은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의 오류 수정 과정과 건설 부문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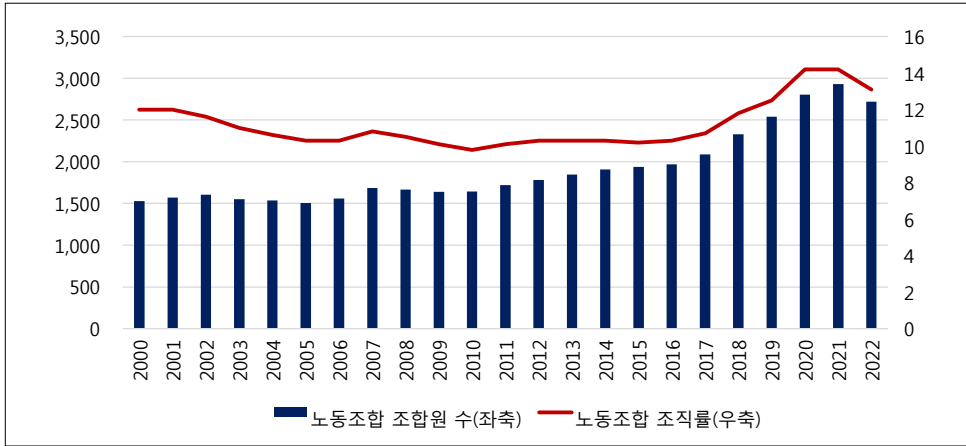
17) OECD(2018)은 한국이 소득주도성장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액은 54%,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누적액은 약 45%이며, 이 인상 폭은 OECD에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18)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기준) = 산출량지수(불변GDP지수) / 총근로시간 * 100.

19) 매년 발간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2014년까지 사업체가 당시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5%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6.5%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수치까지 더하면 74.4%의 기업이 당시 최저임금(7,530원, 전년대비 16.4%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천명, %)



주: 노동조합 조직률=전체 조합원 수/조직대상 근로자 수(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및 교원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IV. 실증분석 결과

1. 실증분석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 진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과 기업 재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데이터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가 가진 양적·질적 수준의 인적자본을 파악하기 위하여 I차 WAVE(2004년~2018년)에는 격년 단위, II차 WAVE(2019년~)에는 매년 단위로 조사하는 기업 수준 데이터이다.²⁰⁾ 이 데이터는 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 수준과 기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7~2017년간(총 6개년)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고, 로지스틱 방법론을 적용한다. 로지스틱 방법론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유용하게 쓰이는 통계적 방법으로 해외진출여부 관

20) 조사 모집단은 NICE평가정보(주)의 『KIS 기업 Data』 개요 정보에 속한 근로자 10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 조사 대상 6개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개인 및 공기업은 제외한다. 조사에 제외된 산업은 1차 산업(농·임·어업)과 광업, 제조업의 일부 산업(담배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3차 산업의 일부 산업(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이다.

련하여 해당연도에 해외 진출 분야가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분석한다. 로그 변환한 로지스틱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ln P(Y=1 \mid x_i) = \ln \frac{\exp[\beta_0 + \sum \beta_i x_i]}{1 + \exp[\beta_0 + \sum \beta_i x_i]} = \ln \left[\frac{P}{1-P} \right] = \beta_0 + \sum \beta_i x_i \quad (1)$$

$P(Y=1 \mid x_i)$: 해외진출여부의 확률

x_i : 해외진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 변수

β_i :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

계수 β_i 는 최대 우도 추정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 MLE)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모든 설명변수들에 1기 시차를 두어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Damijan et al., 2017; Chawla, 2019; Bertrand and Betschinger, 2024).²¹⁾ 설명변수를 정리한 최종 식은 다음과 같다.

$$Y_{i,j,t} = \alpha_i + \beta X_{i,j,t-1} + \gamma Wage_{i,j,t-1} + \theta Labor Union_{i,j,t-1} + \delta_j + \nu_t + \epsilon_{i,t} \quad (2)$$

식 (2)에서 i 는 국내 제조 기업, j 는 산업, t 는 연도를 의미하고,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산업 특성과 연도 특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더미(δ_j)와 연도더미(ν_t)를 추가한다.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는 <표 1>과 같다.

통제변수($X_{i,j,t-1}$)로는 기업 특성을 설명하는 기업규모, 회사설립기간, 무형자산집약도, 자본집약도를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회사 규모 변수는 실질 매출액을 로그 변환하였고, 회사 설립 기간은 t 년도에서 회사 설립연도를 뺀 값, 무형자산집약도와 자본집약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무형자산과 실질자산총계를 실질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1인당 인건비

21) Bertrand and Betschinger (2024)은 기업의 투자 결정 시점과 실제 투자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함을 반영하기 위해 $t-1$ 을 적용해 시차 문제를 해결한다. Chawla (2019)에서도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결정하는 시점에 기업의 개별 요인(예: 기업 규모, 기업 설립연도 등)들이 이미 과거에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t-1$ 기의 변수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Wage_{i,j,t-1}$)와 노조 가입자 수가 ($LaborUnion_{i,j,t-1}$)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1인당 인건비는 실질 인건비를 총노동자 수로 나누었고, 노조 가입자 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를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자료
$(Y_{i,j,t})$	해외진출여부	진출 = 1, 미진출 = 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업규모	ln(실질매출액)	
$(X_{i,j,t-1})$	회사설립기간	당해년도-회사설립년도	
	무형자산집약도	ln(실질무형자산/실질매출액)	
	자본집약도	ln(실질자산총계/총 노동자 수)	
$(Wage_{i,j,t-1})$	1인당 인건비	ln(실질인건비/총 노동자 수)	
$(LaborUnion_{i,j,t-1})$	노조가입자수	ln(노조 가입자 수)	

2. 실증분석 결과

(1) 전체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요인 분석

〈표 2〉에서 첫 번째 행은 전체 제조 기업 해외 진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기업규모, 무형자산집약도, 1인당 인건비, 노조 가입자 수가 양(+)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로 국내 기업의 기업규모가 커지거나(Chen and Tang, 2014; Chawla, 2019),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Pradhan, 2003, 2004).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많고(Cooke, 2001; Cho et al., 2017), 1인당 인건비가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진출을 더욱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yakawa et al., 2013, Fan et al., 2018).

〈표 2〉의 두 번째 행은 연속변수인 노조 가입자 수를 4분위로 분할 후 각 분위의 터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로 이전과 같이 기업규모, 무형자산집약도, 1인당 인건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노조 가입자 수가 1분위(0~25%)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2분위(25~50%), 3분위(50~75%), 4분위(75~100%)로 분위가 높아질수록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위별 노조 가입자 수의 계수 값을 비교하면 노조 가입자 수가 4분위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1분위

에 속하는 기업보다 해외 진출을 수행할 가능성이 4.3배가량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²²⁾

〈표 2〉 기업해외진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2)
기업규모	0.377**	0.332**
	(0.151)	(0.157)
회사설립기간	0.00676	0.00654
	(0.006)	(0.006)
무형자산집약도	0.187***	0.183***
	(0.061)	(0.062)
자본집약도	-0.0331	0.0123
	(0.201)	(0.206)
1인당인건비	0.433**	0.477***
	(0.219)	(0.217)
노조가입자수	0.350**	
	(0.158)	
노조가입자수 Q1		0
		(.)
노조가입자수 Q2		0.765**
		(0.331)
노조가입자수 Q3		0.966***
		(0.341)
노조가입자수 Q4		1.461***
		(0.445)
N	571	571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함.

(2) 기업 특성별·투자 지역별 비교 분석

〈표 3〉의 좌측 패널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기업을 기업 특성에 따라 노동집약적, 수출집약적, 자본집약적, 연구집약적 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의 계수 값을 비교한다.²³⁾ 분석 결과, 산업별 특성과는 상관없이 무형자산집약도가

22) 로그 변환한 모델에서 나온 계수이므로 $\exp(1.461) = 4.31$ 로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이 된다.

23) 수출집약적인 기업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수출한 기업 등을 전부 포함한다.

공통으로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기업을 따로 분석한 결과 (행 1)에서는 기업규모가 해외 진출 결정에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정도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도출한 <표 2>의 결과보다 높다. 이외에도 수출집약적인 기업 (행 2)에서는 기업규모, 회사 설립 기간과 노조 가입자 수, 자본집약적인 기업 (행 3)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집약도와, 1인당 인건비가 양(+)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²⁴⁾ 그러나 연구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기업규모와 무형자산집약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따라서 산업 특성에 따라 해외 진출의 주요 결정요인이 상이하고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집약적인 기업일수록 노조 가입자 수의 영향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기업 특성별·투자 지역별 해외 진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기업 특성별				투자 지역별	
	(1) 노동집약적	(2) 수출집약적	(3) 자본집약적	(4) 연구집약적	(5) 아시아	(6) 북미
기업규모	0.800*** (0.289)	0.625*** (0.226)	0.410 (0.290)	0.638*** (0.195)	0.184 (0.180)	0.101 (0.224)
회사설립기간	0.012 (0.012)	0.0339*** (0.011)	0.0261* (0.014)	-0.00364 (0.008)	0.00387 (0.008)	0.0161 (0.017)
무형자산집약도	0.532*** (0.140)	0.266** (0.117)	0.338*** (0.125)	0.384*** (0.090)	0.0792 (0.083)	0.237** (0.119)
자본집약도	0.598 (0.368)	-0.378 (0.313)	-0.149 (0.484)	-0.198 (0.284)	0.0826 (0.281)	-0.201 (0.483)
1인당인건비	-0.490 (0.508)	0.422 (0.426)	2.091*** (0.764)	0.341 (0.300)	0.595* (0.313)	0.508 (0.737)
노조가입자수	0.649** (0.275)	0.517** (0.252)	0.492 (0.316)	0.255 (0.205)	0.388** (0.186)	0.281 (0.256)
N	242	237	203	335	327	127

주: 1) 행 (1)~(4)의 기업은 각각 노동집약도(인건비/매출액), 수출집약도(수출액/매출액), 자본집약도(자본총계/매출액), 연구집약도(경상연구 및 개발비/매출액)가 산업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함.

24) 자본집약적인 기업 정의 기준을 상향 조정 (50%→상위 25%) 하여 재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집약적 기업의 1인당 인건비는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집약도의 정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데이터 숫자의 한계에 기인한다.

〈표 3〉의 우측 패널은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주요 대상 지역인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 진출한 기업을 따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으로는 1인당 인건비가 높거나 노조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제조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 노동자들의 투입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노조 가입자 수가 많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저임금 국가가 많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an et al., 2018). 북미 지역으로는 무형자산집약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 기업이 현지 생산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특허, 저작권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고기술의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집약적인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Hayakawa et al., 2013).

(3)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표 4〉는 〈표 2〉의 기본 결과에 노사관계의 대립 정도와 노동조합의 권한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항목은 ‘매우 대립적임’, ‘다소 대립적임’, ‘그저 그러함’, ‘다소 협조적임’, ‘매우 협조적임’으로 되어있고,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의 대립 정도를 ‘매우 대립적임’, ‘다소 대립적임’으로 응답한 기업에 대하여 1을 주는 더미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조합 권한에 관련해서는 ‘기업의 조직 변화 및 고용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함’,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함’,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조사하였고,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해야 함’으로 응답한 기업을 1의 더미 변수로 하여 노조 가입자 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각각 1.6배, 1.5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특히 노동집약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세 번째, 네 번째 행에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영향력이 없지만,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큰 기업에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25) $\exp(0.305+0.173)=1.61$ 과 $\exp(0.300+0.134)=1.54$ 에 바탕을 두고 계산한 결과이다.

〈표 4〉 기업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전체 기업	(2) 전체 기업	(3) 노동집약적	(4) 노동집약적
기업규모	0.404*** (0.149)	0.353** (0.151)	0.809*** (0.300)	0.728** (0.298)
회사설립기간	0.00984 (0.006)	0.0126** (0.006)	0.0128 (0.012)	0.0257* (0.015)
무형자산집약도	0.200*** (0.061)	0.181*** (0.062)	0.537*** (0.138)	0.539*** (0.139)
자본집약도	0.00782 (0.201)	-0.0426 (0.200)	0.597 (0.371)	0.533 (0.367)
1인당인건비	0.418* (0.214)	0.532** (0.235)	-0.495 (0.513)	-0.360 (0.502)
노조가입자수	0.305* (0.156)	0.300* (0.161)	0.632** (0.286)	0.637** (0.280)
노조가입자수* 노사관계 대립	0.173* (0.0956)		0.0461 (0.158)	
노조가입자수* 노동조합의 권한		0.134*** (0.0405)		0.253*** (0.0890)
N	571	571	242	242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함.

(4) 기업의 제품 수요 추이에 따른 비교 분석

〈표 5〉은 〈표 2〉의 첫 번째 행 결과에 기업의 주력제품(상품/서비스) 수요 변화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주력제품 수요 변화에 대해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로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기업을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행 1)과 ‘다소 증가’, ‘크게 증가’로 응답한 기업(행 2)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행에서 주력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 집약도와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 진출의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제품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져 해외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행에서 주력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기업에서는 노조 가입자 수보다는 기업규모가 더 크고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할 때 해외 진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커져 노동

력이 저렴한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기업의 제품 수요에 따른 해외 진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제품 수요 감소 및 변화 없음	(2) 제품 수요 증가
기업규모	-0.0119 (0.267)	0.710*** (0.272)
회사설립기간	0.00157 (0.008)	0.0103 (0.011)
무형자산집약도	0.242*** (0.088)	0.0617 (0.108)
자본집약도	0.256 (0.308)	-0.120 (0.328)
1인당인건비	0.520 (0.378)	0.611* (0.346)
노조가입자수	0.691** (0.289)	0.0802 (0.254)
N	338	225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함.

(5) 기업 혁신 정도에 따른 비교 분석

〈표 6〉은 〈표 2〉의 첫 번째 행 결과에 주력제품(상품/서비스) 시장 전략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해당 기업의 시장 전략에 대해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상품/서비스)을 개발하여 고객 및 시장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함’, ‘신시장 진입 및 신제품(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선도기업의 성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제품(상품/서비스)을 개발하여 시장을 공략함’, ‘기존의 제품(상품/서비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신시장 진입 및 신제품(상품/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음’으로 구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기업을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행 1), 신제품 개발을 선택적으로 하는 기업(행 2),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행 3)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행 1)만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이 기업규모, 무형자산집약도, 노조 가입자 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규모가 크고 무형자

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해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을 하는 혁신기업에 인적자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을 높여 R&D 관련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기업의 혁신 정도에 따른 해외 진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혁신기업	(2) 선택적 혁신기업	(3) 비혁신기업
기업규모	0.397* (0.219)	0.124 (0.295)	0.607 (0.458)
회사설립기간	0.00253 (0.013)	-0.00140 (0.009)	0.0133 (0.015)
무형자산집약도	0.292** (0.146)	0.142 (0.109)	0.169 (0.118)
자본집약도	-0.451 (0.393)	0.533 (0.423)	0.145 (0.535)
1인당인건비	0.394 (0.395)	0.461 (0.358)	0.434 (0.442)
노조가입자수	0.574** (0.268)	0.258 (0.284)	0.0756 (0.476)
N	180	193	161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함.

V. 결 론

한국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가이지만,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보다 3배가량 많이 증가하면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7년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노조조직률 제고 정책과 같은 노동 규제를 신설 및 개정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욱 확대된 해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을 중심으로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요인을 기업 특성별, 투자 지역별, 노사관계, 제품 수요와 기업 혁신 정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노동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자 지역별, 기업 내 노사관계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기업규모, 무형자산집약도, 1인당 인건비, 노조 가입자 수가 해외 진출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경우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노조 가입자 수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동집약적인 기업에서 크게 나타났고, 투자 지역별 분석에서는 아시아로 투자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추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많은 기업일수록 노조 가입자가 증가할 때 해외투자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주력제품 수요가 증가하지 않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에서 노조 가입자가 증가할 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제조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인건비와 노조 가입자 수 등 기업이 처한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을 최적의 투자입지로 구축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과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대립 등의 부분이 개선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최근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했으며, 해외직접투자를 투자금액이 아닌 해외 진출 여부로 분석하여 투자액 차이에 따른 결정요인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길성·원용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재고찰: 아프리카는 다른가?” 『국제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2018, pp. 35-57.
2. 강성태,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 『노동법연구』, 제34호, 2013, pp. 321-354.
3. 고영우·남준우, “노동조합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제31권 제3호, 2013, pp. 211-237.
4. 권철우·전봉걸,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여건,”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010, pp. 141-167.
5. 김동원,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브라질 현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17, pp. 173-198.

6. 김상훈, “최저임금 등 고비용구조 심화...대기업 이어 中企도 脫한국 가속,” 서울경제, 2017. 10. 11.
7. 김영민 · 강은영, “최저임금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 19권 제1호, 2016, pp. 1-24.
8. 김 준, 『OECD 고용보호지수: 의미, 한계,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9. 김주희,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투자동기에 따른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노동연구』, 제22집, 2011, pp. 63-99.
10. 김현수, “노동이 인건비 부담에...기업들 더 못버티고 脫한국 러시,” 서울경제 2017. 07. 25.
11. 남성일, “노동조합은 기업의 이윤율을 높이는가?”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1호, 2015, pp. 67-92.
12. 박성준 · 변양규 · 정현용,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8.
13. 류재우,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1호, 2005, pp. 105-133.
14. 송예나 · 김성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법인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9권 제2호, 2023, pp. 109-161.
15. 정한나 · 김상기, “투자상대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론과 실증연구,” 『경제학연구』, 제66권 제3호, 2018, pp. 97-122.
16. 최인현, “수출주도형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2010, pp. 33-44.
17.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2021.
18. _____,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2022.
19. _____,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 2023.
20. 한국경제연구원, 『투자 유출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해외유출 분석』, 2021.
21. 한예경 · 이재철 · 문지웅, “제조업 脫한국... ‘투자역조’ 역대최대,” 매일경제, 2019. 02. 27.
22. Aloï, M., M. Leite-Monteiro, and T. Lloyd-Braga, “Unionized Labor Markets and Globalized Capital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8, No. 1, 2009, pp. 149-153.
23. Amin, A., S. Anwar, and X. H. Liu,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Romania: Evidence from Non Linear ARD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Vol. 27, No. 1, 2022, pp. 665-677.
24. Bae, C., and Y. J. Jang,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 17, No. 4, 2013, pp. 417-445.
25. Bassanini, A., and E. Ernst, “Labour Market Institutions,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Innovation: Cross-country Evide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16., 2002.
26. Bertrand, O., and M. A. Betsching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id and FDI from Developed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Empirical Insights from Japanese Firm-level Dat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55, 2024, pp. 782-795.
27. Bhasin, N., and J. Paul, “Exports and Outward FDI: Are They Complements or Substitutes? Evidence from Asia,”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24, No. 1, 2016, pp. 62-78.
28. Blanchard, O., and J. Wolfers,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Vol. 110, No. 462, 2000, pp.1-33.
29. Boone, J., "Technological Progress, Downsizing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Vol. 110, No. 465, 2000, pp.581-600.
30. Buch, C. M., I. Kesternich, A. Lipponer, and M. Schnitzer, "Financial Constrain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level Evidence,"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50, 2014, pp.393-420.
31. Caves, R. 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Vol. 38, No. 149, 1971, pp.1-27.
32. Chawla, I., "Determinants of Firms' Initial Decision to Invest Abroad: An Application of "Survival" Analysis to Manufacturing Firms in Indi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Vol. 55, No. 3, 2019, pp.562-583.
33. Chen, Y. S., and I. J. Chen,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37, No. 7, 2013, pp.2408-2418.
34. Chen, W., and H. Tang, "The Dragon is Flying West: Micro-level Evidence of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Asian Development Review*, Vol. 31, No. 2, 2014, pp.109-140.
35. Cho, H. et al., "Do Labor Unions Always Lead to Underinvestment?"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 29, No. 1, 2017, pp.45-66.
36. Cooke, W. N., "The Effects of Labour Costs and Workplace Constrai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ng High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12, No. 5, 2001, pp.697-716.
37. Damijan, J., Č. Kostevc, and M. Rojec, "Not Every Kind of Outward FDI Increases Parent Firm Performance: The Case of New EU Member State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Vol. 51, No. 1, 2017, pp.74-97.
38. Driffield, N. et al., "FDI Motives and the Use of Tax Havens: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35, 2021, pp.644-662.
39. Dunning, J. H.,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1980, pp.9-31.
40. Edamura, K. et al., "Impact of Chinese Cross-border Outbound M&As on Firm Performance: Econometric Analysis using Firm-level Data," *China Economic Review*, Vol. 30, 2014, pp.169-179.
41. Fan, H., F. Lin, and L. Tang, "Minimum Wage and Outward FDI from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35, 2018, pp.1-19.
42. Hayakawa, K., H. H. Lee, and D. Park, "The Role of Home and Host Country Characteristics in FDI: Firm-level Evidence from Japan, Korea and Taiwan," *Global Economic Review*, Vol. 42, No. 2, 2013, pp.99-112.
43. Herzer, D., "Outward FDI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37, No. 5, 2010, pp.476-494.
44. Helpman, E.,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2, No. 3, 1984, pp.451-471.
45. Hymer S. 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 Investment," Ph.D Dissertation, Published Posthumously, The MIT Press, 1960.
46. Kim, J., and D. K. Rhee, "Trends and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DI,"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7, No. 1, 2009, pp.126-154.
 47. Kindleberger, C. P.,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9.
 48. Lancheros, S., "Exports, Outward FDI and Technology Upgrading: Firm Level Evidence from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52, No. 10, 2016, pp.1415-1430.
 49. Li, Z., S. Gao, and S. Song, "Labor Protection, Labor Costs, and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84, 2023, pp. 444-459.
 50. Markusen, J. R., "Multinationals, Multi-plant Economies, and the Gainsfrom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No. 16, Vol. 3-4, 1984, pp.205-226.
 51. Olney, W. W., "A Race to the Bottom? Employment Protec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1, No. 2, 2013, pp.191-203.
 52. Owen, E., "The Political Power of Organized Labor and the Poli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ed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8, No. 13, 2015, pp.1746-1780.
 53. Pradhan, J. P., "Liberalization, Firm Size and R&D Performance: A Firm Level Study of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Journal of Indian School of Political Economy*, Vol. 14, No. 4, 2003, pp.647-666.
 54. _____, "The Determinan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Firm Level Analysis of Indian Manufacturing," *Oxford Development Studies*, Vol. 32, No. 4, 2004, pp. 619-639.
 55. _____, "Indian Outward FDI: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24, No. 2, 2017. pp.43-70.
 56. Saint-Paul, G., "Employment Protection,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and Inno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6, No. 2, 2002, pp.375-395.
 57. Seyoum, M., R. Wu, and L. Yang, "Technology Spillovers from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Ethiopia," *China Economic Review*, Vol. 33, 2015, pp.35-49.
 58. Shin, M. J., and C. Y. Le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5, No. 5, 2019, pp. 781-803.
 59. Thomas, R., and K. Narayanan, "Determinan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tudy of Indian Manufacturing Firms,"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24, No. 1, 2017, pp. 9-26.
 60. Yan, B., Y. Zhang, Y. Shen, and J. Han, "Productivity, Financial Constrain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level Evidence," *China Economic Review*, Vol. 47, 2018, pp. 47-64.
 6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2018.
 62. _____,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

Effects of Labor Market Rigidity on Foreign Market Entry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Yena Song* · Soomin Han** · Sunhyun Kim***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rms' decision on foreign market entry by focusing on the role of labor market rigidity using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data from 2007 to 2017. We use the data from HCCP survey by the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rength of labor union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overseas expansion. The firm-specific analysis confirms that the impact of labor union is greater for labor-intensive firms. The regression analysis by investment destination reveals that overseas expansion towards Asian countries is largely affected by labor costs and the number of union members, but for expansion into North America is not affected by labor market rigidity. For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within compan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ore confrontational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overseas expansion. Lastly, we find that overseas expansion increases in companies with decreasing demand for their main products or innovative companies that develop new products. 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abor market rigidity affects firms' decision on overseas expans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effects when designing reshoring policies.

Key Words: overseas expansion, labor union, 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costs, HCCP

JEL Classification: F4, J3, J5

Received: July 12, 2024. Revised: Sept. 28, 2024. Accepted: Oct. 18, 2024.

* First Author, Doctoral Candidate, BK21 Program,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e-mail: syena4360@skku.edu

** Co-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SI), 411 Hannuri-daero, Sejong 30116, Korea, Phone: +82-44-960-5330, e-mail: smhan@kosi.re.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Phone: +82-2-740-1564, e-mail: shenrykim@skku.edu